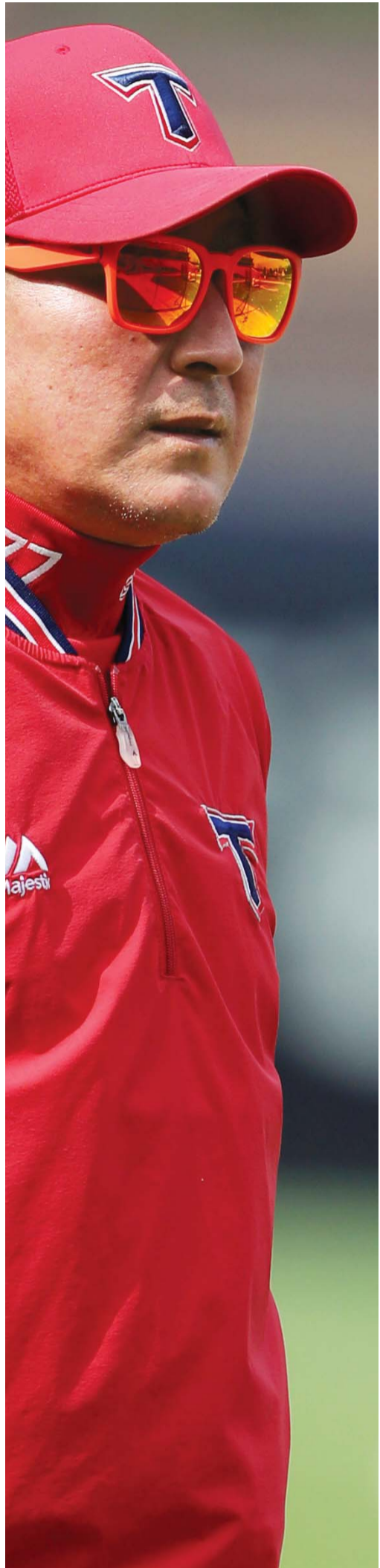


땀질식 경기 운영 '패착' ... 스토브리그 화두는 '변화'



김기태 감독

패장이 된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반성과 변화'를 이야기했다.

KIA는 지난 16일 험난했던 올 시즌을 쓴역전패로 마무리했다. 이날 고척스카이돔에서 넥센 히어로즈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른 KIA는 6-10으로 지면서 2차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광주로 내려왔다.

경기가 끝난 뒤 김 감독은 "안 좋은 부분들과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 감독의 책임이다. 선수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잊지 않고 내년 시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힘든 한 해 보냈다. 안 좋았던 것들이 많았고, 감독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팬들에게 죄송하다. 감독도 잘못된 부분 알고 있고, 선수들도 많은 걸 알게 된 시즌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독부터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생각 많이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부터 달라지겠다"는 사령탑과 함께 1년 만에 입지가 달라진 KIA는 달라져야 한다.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호칭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수비가 마지막 순간에도 KIA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한국시리즈를 지휘했던 '우승 포수' 김민식을 시작으로 첫 포스트시즌의 중앙감을 이기지 못한 황윤호 등 4개의 실책이 KIA의 올 시

투수

선발 자원 시즌 내내 기복 심해 선발·불펜 변칙 운용 되풀이 김세현·윤석민 부진에 뒷문 허술

타자

수비보다 공격력 위주 선발 고령화·부상 겹쳐 움직임 둔화

야수

3루수·유격수 백업 육성 못해 최원준 포지션 전전...성장 걸림돌

즌 마지막 경기에서 쏟아졌다.

수비 실책에 온 KIA는 반대로 상대의 수비에 땅을 쳤다. 넥센 좌익수로 나온 고졸 2년 차 이정후의 호수비 열전에 '베테랑 군단' KIA는 발이 묶였다.

올 시즌 KIA의 팀 실책은 94개로 두산(77개), 삼성(79개)에 세 번째로 적지만 기록되지 않은 실책과 실수가 잦았다.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에 치중된 주축 야수진은 고령화와 부상까지 겹치면서 움직임이 더욱 둔해졌다. 또 폭발적인 화력으로 수비 약점을 가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에는 공격도 들쭉날쭉했다. 그만큼 수비가 경기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

시즌 전부터 언급됐던 3루수, 유격수 백업 고민은 그대로다. 최원준이 많은 포지션을 전전하며 테스트를 받았지만 공수에서 기대만큼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마운드에도 마지막까지 물음표가 가득했다. 선발 대안으로 시작해서 끝이 났다.

임기영의 부상 후유증과 선발 자원들의 부진 속 시즌 내내 선발 고민은 계속됐다. 한승혁이 급한 불을 끄지만 기복 많은 '첫 선발 시즌'을 보냈고, '최고참' 임창용은 시즌 도중 선발로 이동하는 등 사연 많은 마운드였다.

'5위'가 발등의 급한 불이 되면서 시즌 마지막까지 마운드의 부담도 컸고, 차분하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준비하지 못했다. 또 양현종의 갑작스런 부상 변수에 핵타의 몸 상태도 완벽치 않아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까지도 KIA는 선발 고민을 했다.

몇 년째 지적되어온 선발진의 불펜 투입 등의 변칙 운영도 계속됐다. 결과도 좋지 못했고, 팬들의 불만도 컸다.

경기를 마무리하는 과정도 힘들었다. 임기준이 올 시즌 눈부신 성장세와 안정감으로 필승조 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승리까지 가는 길이 멀었다. 특히 지난해 우승에 큰 역할을 했던 김세현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올 시즌 40경기에 나온 김세현은 6.75의 평균 자책점으로 1승 4세이브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이브보다 많은 4번의 불륜세이브와 함께 6패를 남겼다. 계속된 실패에도 사령탑의 신뢰는 굳건했고, 상승세의 길목마다 김세현이 고개를 숙이면서 KIA는 초반 동력을 잃었다. '지나친 믿음'은 전체적인 마운드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시즌 막바지에는 윤석민이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KIA는 지난 2010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우승의 여운을 살리지 못하면서 원점에서 왕조 재건에 나서게 됐다. '변화'가 KIA 스토브리그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불운과 실수의 5회, KIA를 놔주지 않았다

2018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공 하나'로 기억될 승부가 됐다.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는 지난 1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6-10로 지면서 쓸쓸히 시즌을 마감했다.

2016년 LG 트윈스와 '명품'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렀던 KIA는 지난해에는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한 만큼 '경험'으로 넥센을 공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날 경기장에는 KIA 팬들의 탄성이 가득했다.

많은 아쉬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장면엔 이점이 없다. 5회 김선빈의 손가락으로 향한 공에 사실상 승부가 끝났다.

0-0으로 맞선 5회초 선두타자 김민식이 볼넷으로 출루했다. 타석에 선 김선빈이 초구에 번트 파울을 기록한 뒤 2구째에도 번트 동작을 취했다. 김선빈이 몸쪽으로 오는 공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망이를 뺐지만, 공은 그대로 김선빈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강타했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김선빈은 대주자 황윤호와 교체됐다. 이후 KIA는 최형우의 2루타로 2점의 리드를 잡았지만, '김선빈의 나비효과'는 5회말 수비에서 바로 작용했다.

포수 김민식의 잇따른 실수로 어수선했던 5회말. 첫 포스트시즌 무대에 오른 황윤호가 마음과 다른 움직임으로 상대 기를 살려줬다. 황윤호가

와일드카드전 결정적 장면

김선빈 부상에 대수비 황윤호 실책 2-0 리드 순식간에 2-5로 뒤집혀 선발 양현종·포수 김민식 '흔들' 팻단·김윤동 등 불펜 난조 6-10 패

서견장의 땅볼 타구를 놓친 뒤 1루에 악송구했다. 샌즈의 타구를 잡기 위해 슬라이딩 캐치를 했지만 글러브를 맞고 외야로 흘러간 공은 2타점 2루타가 됐다.

순식간에 2-5가 되면서 가을 잔치가 낯선 넥센 선수들은 날개를 달았다.

승장이 된 넥센 장성석 감독도 "2실점 했지만 선수들이 동점, 역전을 바라고 있었다. 상대의 실수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승리의 기운이 온 것 같다. 실수가 승패를 좌우한다"며 5회를 승부처로 지목했다.

김선빈을 몰라나게 한 5회, 승패를 가른 또 다른 장면도 있었다. 잘 버티던 선발 양현종을 흔들 또 하나의 공.

4회를 무실점으로 막은 양현종이 5회말 선두타자 임병욱을 좌전안타로 내보냈다. 포수 김민식의 타격 방해가 나오면서 무사 1-2루. 그리고 타

석에 선 김재현이 번트 동작을 취한 뒤, 타격 자세로 전향해 유격수 방향으로 공을 보냈다. 황윤호가 급히 공을 잡아 1루로 송구했지만 내야안타가 기록되면서 무사 만루가 됐다.

여기에 포수 김민식의 파울 실책까지 겹치면서 양현종의 등판은 4.1이닝에서 끝났다. KIA는 임창용을 시작으로 팻단·김윤동·임기준·윤석민을 마운드에 투입했지만 추가 실점이 이어지면서 6-

10패를 기록했다.

장성석 감독은 김재현의 페이스 번트 앤 슬러시 장면엔 대해 "역전을 하려는 마음이 컸다. 노련한 양현종이 100프로 수비를 들어 올 것으로 생각했고, 빠른 주자들이라서 작전을 냈다"고 설명했다.

불운했고 세밀하지 못했던 '5회'는 KIA의 2018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아픈 장면으로 남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포수 김민식이 1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넥센과 경기 5회말 무사 만루 위기 상황에서 넥센 이정후의 파울 뜬 공을 놓치고 있다. /연합뉴스

11년 vs 4년 ... 누구의 간절함이 통할까

한화 vs 넥센 준플레이오프 격돌 ... 내일 대전서 1차전

'11년의 기다림' 독수리나. '4년 만의 플레이오프(PO) 도전' 영웅 군단이나.

대전전은 결정됐다. 정규시즌 3위 한화 이글스와 4위 넥센 히어로즈는 1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5전 3승제) 1차전을 벌인다.

양팀은 20일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치르고 21일 휴식일에 이어 22~23일에는 넥센의 홈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3~4차전을 치른다.

이때까지 2승 2패로 맞서면 25일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 준플레이오프 5차전을 소화하는 일정이다. 한화와 넥센이 포스트시즌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의 마지막 포스트시즌 출전은 2007년이었던다. 2008년부터 KBO리그에 참가한 넥센과는 가을 잔치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다.

올해 11년 만의 가을야구를 앞둔 한화는 한풀이에 성공했다.

2007년 10월 17일 두산 베어스와 플레이오프 3차전(0-6 패배)이 마지막 포스트시즌 경험이었었던 한화는 19일 넥센과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4020

일 만에 가을야구를 한다.

한화 선수들은 의외로 포스트시즌 경험이 적지 않다.

정근우와 정우람, 송은범은 과거 'SK 와이번스 왕조'의 일원이었고, 권혁과 이용규는 각각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에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넥센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한다.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넥센은 지난해 아예 가을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

최근 6시즌 가운데 5차례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넥센에는 오히려 올해가 포스트시즌 첫 경험인 선수가 많다. KIA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등록된 30명의 선수 가운데 절반인 15명이 가을야구 새내기였다.

이들은 포스트시즌 데뷔전인 16일 KIA와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10-6 승리를 맞았고, 이제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유경험자'가 됐다.

/연합뉴스

류현진 등판 6차전 경기 확정

다저스, 밀워키와 연장 접전 끝 2-1 승...NLCS 시리즈 2승2패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치열한 불펜 대결로 펼쳐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4차전에서 연장 13회에 터진 코디 벨린저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차지했다.

다저스는 17일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NLCS 4차전에서 밀워키 브루어스에 2-1로 승리했다. 이 승리로 다저스는 NLCS 전적

을 2승 2패로 맞췄다.

다저스는 월드시리즈(WS)에 진출하려면 레이턴 커쇼와 류현진이 선발 등판할 예정인 5-6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양 팀은 불펜 투수를 쏟아부으며 5시간 15분에 걸친 혈투를 벌였지만, 승부는 연장 13회말에야 갈렸다.

NC 새 사령탑에 이동욱 수비코치

NC 다이노스가 이동욱(44) 수비코치를 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NC는 이동욱 선임 감독에게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팀을 맡긴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이다.

이동욱 선임 감독은 2012년 NC 구단이 출범할 때부터 수비코치를 맡아온 창단 멤버다. NC 감독 으로서는 김경문 감독(2012~2018년 6월)을 이

은 2대 감독이다.

NC는 이 감독이 팀 내 주전 선수부터 퓨처리그 유망주까지 모든 선수의 기량과 특성을 고루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선수 육성과 경기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진 야구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NC에서는 지난해까지 NC 1군(N팀) 수비코치로 활동했고, 올해 재할군(D팀) 수비코치를 맡았다. /연합뉴스

다저스의 '막강 선발진' 중 한 명인 리치 힐은 이날 선발등판해 5이닝 3피안타 3볼넷 6탈삼진 1실점으로 잘 던졌다.

밀워키의 선발로 나온 지오 곤살레스는 1이닝 2피안타 1볼넷 1실점으로 조기에 강판당했다.

그러나 밀워키의 불펜 프리데리 페랄타(3이닝 무실점), 코비 번스(2이닝 무실점), 호아킵 소리아(1이닝 무실점), 조시 헤이더(1이닝 무실점), 코리 크네이블(1이닝 무실점)이 호투 릴레이로 다저스 타선을 침묵에 빠뜨렸다.

결국 막판 3.2이닝을 책임지던 주니어 게라가 연장 13회말에 벨린저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으면서 경기기가 끝났다. /연합뉴스